

“대한민국 육상 모든 기록 갈아치울 것”

3 한국의 우사인 볼트를 꿈꾼다 최기만 군

부산의 한 작은집에 거주하는 아빠와 엄마는 몸이 불편하다.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는데다 매달 지급되는 복지수당으로 생계를 꾸려가다 보니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 그렇지만 아들에게는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부모님이다.

한국육상 '기대주' 최기만(17·부산체육고등학교 2학년) 군에게는 작은 소망이 있다. 사랑하는 두 분의 삶을 누구보다 행복하게 만들어 드리는 것. 졸업한 뒤 대학교에 진학하기보다 실업팀에 입단하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는 이유다.

“조금 고민스럽다.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했다. 서울을 비롯한 여러 학교에서 부족한 내게 감사하게도 많은 관심을 주신다. 집안사정이 좋지 않아 가장 역할을 잘 하고 싶은데,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많은 분들께 조언을 구하고 있다.”

엄마 고향 가나...비행기만 3번 갈아타 부모님 몸 불편해 복지수당으로 생계 가장 역할 해야...실업팀 입단 고민도

달리기로 천식 극복...숨 가빠도 뿌듯 주종목 400m...100m·허들에도 흥미 올림픽 꿈...일단 전국대회 3관왕부터



한국인 아빠와 가나 출신의 엄마 사이에서 자란 최기만 군은 한국육상의 기대주로 손꼽힌다. 부산체육고에서 400m 중장거리 선수로 성장하고 있는 최 군은 최근 학교 근처의 찻집에서 스포츠동아와 만나 “우사인 볼트를 뛰어넘는 훌륭한 선수가 되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부산 | 남정현 기자

최 군은 다문화가정 출신이다. 엄마 최리나(개명) 씨가 아프리카 가나 출신이다. 최 군은 4차례 정도 엄마 고향을 찾은 적이 있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 경유까지 비행기만 세 번 갈아타는 먼바다 지역이다. 한 번 갈 때면 수개월씩 머물면서 육상선수의 꿈을 키웠단다. 그곳 사람들의 삶 자체가 운동이었다. 너도 나도 달리기를 했고, 약간의 공간만 있으면 공놀이를 했다. 길거리에도 동물도 참 많았다. 대로변에 누워 있는 소와 개는 기본이었다. 심지어 구불구불한 골목길을 빠르게 기어오는 뱀을 보고 재빨리 도망간 추억도 있다.

신장 184cm·체중 71kg의 당당한 체격 조건을 자랑하는 최 군의 주 종목은 400m, 부 종목은 400m 허들이다. 그런데 아직 종목을 확정짓지는 못했다. 100m에 110m 허들, 심지어 세단뛰기에도 흥미가 있다. 특히 세단뛰기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훈련할 계획이지만 패 소질이 있다.

기록도 실력도 우수한 편이다. 올 7월 전북 익산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제39회 전국시도대항 육상경기대회에서 2관왕을 했다. 400m를 49초19에 끊었고, 400m 허들은 54초38에 결승선을 통과했다. 지난해까지는 100m와 110m 허들에 주력했는데, 400m를 50초 이내에 진입하면서 가능성을 확인했다.

“일단 내년 목표는 분명하다. 전국대회 3관왕이다. 정규시즌에는 매달 두 개 대회 정도 출전하는데, 한 번쯤은 3관왕을 하고 싶다. 400m와 400m 허들 이외에 한 종목

에서 우승을 추가하고 싶다.”

대부분의 다문화가정 출신 학생들이 경험하겠지만 최 군도 깊은 상처를 받곤 했다. 버스과 지하철에서 마주칠 때 누군가 무심하게 쳐다보는 것도 부끄러워 비속어를 섞어가며 놀릴 때면 그는 짝짝이 달려들곤 했다.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기까지 본인도, 주변의 친구들도 꽤 긴 시간이 필요했다.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는데 당시에는 가장 큰 어려움이였다. 외국에 그대로 놀러왔으면 어떨까 싶었다. 그래도 나쁜 친구들보다 좋은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 (부산체육고 경기지도자) 정소희 코치님과 (단거리·도약부) 허순영 감독님이 항상 당당하라고 조언해주셨다.”

육상은 정말 우연히 시작됐다. 천식이 심

하고 몸도 약했다. 물론 운동은 좋아했다. 중학교 1학년 때인 2014년 일반학생 신분으로 나선 부산 첼린저대회에서 인상적인 모습을 보인 최 군을 정 코치가 스카우트해 지금에 이르렀다.

“뛰는 것이 너무 행복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지만 뿌듯하다. 깨기 어려운 한계를 서서히 극복해 나가는 쾌감이 여간 쓸쓸한 것이 아니다. 벽을 하나하나 허물어가면서 스트레스도 풀린다. 트랙을 내달릴 때면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다. 대한민국 육상의 모든 기록을 깨트리고 싶다. 하계올림픽 출전도 꼭 이룰 것이다.”

최 군의 롤 모델은 대부분의 육상선수들과 다르지 않다. 역시나 우사인 볼트(32·자메이카)다. 종목을 다룬지언정 인터넷 동영상에서 볼트가 여주하는 모습을 보며 엄청난 감동을 느꼈다. 그에 버금갈 선수로 성장하기 위해 최 군도 가능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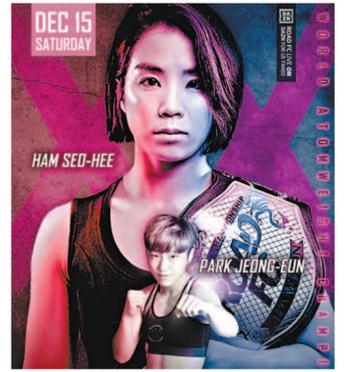
“마지막 순간까지 몰고 늘어지며 포기하지 않는 근성이 내 장점이다. 필드 훈련뿐 아니라 이미지 트레이닝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보폭과 팔 치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계적인 선수의 동작을 보고 열심히 배우고 있다. 무작정 따라하기보다는 내게 맞는 부분을 찾아 접목시키려 한다.”

최 군에게 올 시즌은 ‘절반의 성공’이었다. 좋은 기록도 냈지만 아쉬움도 경험했다. 전북 일원에서 개최된 제99회 전국체육대회가 후자였다. 정강이 피로골절 후유증으로 무리하지 말았어야 하나 대회 400m 예선과 결승을 전부 뛰었다. 성적이 좋을 수 없었다. 7위로 레이스를 마쳤다.

돌아온 것은 질책이 아닌 따스한 격려였다. 정 코치는 “아프도 성공도 네 인생에 훌륭한 경험이 될 것”이라며 힘을 북돋았다. 겨울은 웨이트 트레이닝에 전념할 참이다. 천식으로 날씨가 추워지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호흡근관증세가 찾아오곤 하나 땀을 흘려야 살아있음을 느끼는 최 군이다.

“전 세계가 알아봐주는 선수로 성장하고 싶다. 건방진 표현일 수 있으나 우사인 볼트를 뛰어넘고 싶다. 육상이 한국에서 비인기 종목이 아닌, 인정받는 인기종목으로 재탄생할 수 있기를 바란다. 내 존재로 육상이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이들에게 매력을 준다면 충분히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부산 |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박정은과 함서희의 타이틀매치를 알리는 XIAOMI 로드FC 051 XX 메인포스터. 사진제공 | 로드FC

(아마추어리그)
‘센트럴 출신’ 여성 파이터 로드FC 051 중심에 서다
박정은·이예지 등 내달 대회 주목

ROAD FC 로드 FC는 2012년부터 아마추어 무대인 센트럴리그를 만들어 선수들을 발굴하고 키워내고 있다. 1개월 혹은 2개월 주기로 대회가 개최돼 많은 선수들이 경험을 쌓고 있다. 현재까지 44회의 센트럴리그가 열려 수많은 프로 선수들을 배출해냈다.

12월 15일 XIAOMI 로드FC 051 XX에는 센트럴리그 출신들이 대거 출전한다. 이들은 여성부리그 핵심 선수들로 우뚝 서 2018년 마지막 대회를 빛낼 예정이다.

가장 주목할 선수는 메인이벤트에 나서는 박정은(22·팀 스트롱울프)이다. 센트럴리그에서 두각을 드러낸 후 2015년 프로 무대에 데뷔한 선수로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경험을 쌓았다. 세계랭킹 1위 함서희에 비해 경험은 부족하지만 패기 있고, 성장 가능성이 많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정은이 함서희를 꺾게 된다면 로드FC 역대 최연소 챔피언 기록도 세우게 된다.

박정은은 “센트럴리그는 고향 같은 곳이다. 성장했고, 많이 배웠다. 센트럴리그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다”고 말했다.

코메인 이벤트에 나서는 이예지(19·팀 제이)도 센트럴리그를 거쳤다. 지난해까지 ‘여고생 파이터’로 이름을 알렸고, 프로 무대에서도 경쟁력을 보이며 많은 인기를 끌었다. 이외에 심유리(24·팀 지니어스), 김영지(25·팀 제이), 김해인(26·씨비MMA), 홍윤하(29·송탄MMA 멀티짐), 백현주(20·광주승리짐)까지 XIAOMI 로드FC 051 XX에 출전하는 10명의 선수 중 7명이 센트럴리그가 배출한 파이터다.

로드FC 김대환 대표는 “센트럴리그는 그동안 수많은 프로 파이터들을 배출하고, 현재도 많은 선수들이 경험을 쌓으며 프로 선수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곳이다”며 “최근 전국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전국의 MMA 유망주들을 많이 발굴해 프로 선수들로 키워내겠다”고 말했다.

장은상 기자 award@donga.com



전국 27개 지역의 문화전사를 자임하고 있는 ‘깔깔깔’ 2기 팀들. 3D 프린팅 프로젝트를 내건 틱커메이커, 다문화가정 자녀들과 함께 하는 해밀, 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장점인 이유, 전래놀이를 알리는 열림문화(왼쪽부터). 사진제공 | 코리아문화수도 조직원

‘깔깔깔’ 2기, 끼쟁이들 다 모였네

3D 프린팅 그룹 ‘틱커메이커’부터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해밀’까지 ‘이유’ ‘그린트리’ 1기 이어 2기 참여

코리아문화수도 조직위원회의 지역 문화활동가 발굴 프로젝트 ‘깔깔깔’의 2기 팀들을 소개한다. ‘깔깔깔’은 때깔, 빛깔, 색깔에서 ‘깔’만을 모아 만든 조어다. 이름에서부터 툭툭 튀는 감각과 아이디어가 선명하게 느껴진다. 올해는 2기 깔깔깔 29개 팀이 선정돼 조직위의 지원을 받았다. 전국 27개 지역, 22개 분야의 지역문화사업을 추진 중인 팀

들이다.

경기심포니오케스트라 단원들은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각자의 연주 실력을 키우는 한편 ‘애니콘서트 with KIDS’ 콘서트를 열었다. 지역 어린이들과 다양한 퍼포먼스를 벌여 주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틱커메이커의 지역문화사업은 ‘부산을 3D 프린팅하다’라는 타이틀을 내걸었다. 어린이와 청소년으로 구성된 학생들이 부산의 모습을 직접 설계해 3D 프린터로 제작하는 첨단 프로젝트다. 팀장, 팀원, 어린이로 구성된 틱커메이커팀이 참여해 각자 조사한 지역에 대한 자료를 발표보드로 만들어 설치하고, 3D 프린터로 제작한 도시를 전시한다.

1기에도 참여했던 이유는 ‘올망졸망’ 깔깔깔 10월의 어느 멋진 날’이란 근사한 이름의 사업을 수행했다. 연극, 뮤지컬, 댄스, 보컬 등의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단원들이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어린이들이 지도했다. 융복합 공연인 ‘어린이 깔깔깔’ 프로젝트를 기획해 어린이들만의 축제로 기획하기도 했다. ‘10월의 어느 멋진 날’은 10월28일에 성공적으로 열렸다.

‘NGO환경 청소년 버스킹’을 진행 중인 그린트리도 1기 출신이다. 1년 이상의 버스킹 활동 경험자들이 참여해 NGO 청소년 환경단체와 연결된 청소년문화 환경버스킹을 벌이고 있다. 버스킹 토너먼트를 개최해 상위 입상자에게 그린트리 입단을 제의하기도 했다. 버스킹을 마친 뒤에는 지역 주변 문화활동을 실시했다.

해밀의 ‘무지개색 깔깔깔’은 다문화가정 자녀들과 청소년들이 함께 하는 지역문화

사업이다. 해밀은 가수 인순이씨가 설립한 다문화 대안학교의 교명이기도 하다. 다양한 악기공연을 통해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임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열림문화는 전래놀이를 매개체로 아이들이 서로 협동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래놀이 한마당’을 진행했다. 놀이도구를 직접 만들면서 놀이와 놀이구구에 대한 전래 이야기도 나눈다.

공연을 제작해 무대에 올리는 무하는 청소년극단이다. 6기 학생들의 성장기 다큐멘터리, 아가펠라 창작 뮤지컬 ‘H-School’을 깔깔깔 페스티벌에서 공연했다. 연극, 댄스, 아가펠라 교육을 통해 공연을 만드는 것이 주요 사업이다. 1년에 1기수를 배출해 왔는데 이번 6기부터는 3개월에 1기수씩, 1년 4개 기수를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